

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

<현재의 하나님>

11/11(주일) 설교 내용

요한복음 11:1-11

1.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기도제목이 응답되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지체된 응답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함과 달리, 예수님의 지체로 인해 나사로는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기도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중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기도제목이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2.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위독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열매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1번 질문에서는, '나의 경험'에 대해 나누었다면,
- 2번 질문에서는,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함을 통해 결국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드러난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설교를 근거로 나누어 주십시오.

1.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
2. 주변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
3. 믿음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함

3.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까지 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옮깁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믿음으로 옮겨야 하는 돌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며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믿지 못하고 돌문을 옮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내가 옮겨야 하는 돌문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진솔한 고백이 먼저 있다면 더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